

# 독일어권 지리지(지지)의 연구동향

안 영 진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1. 서론

1980년대 이후 선진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리지(지지 또는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대 지리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는 독일어권의 지리학도 이러한 세계적 학문 추세에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독일어권의 지리학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어권 지리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근대 지리학의 형성과정에서 '지지'라는 견고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으나, 그 후 신지리학의 등장과 함께 세계 지리학계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하는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197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에 대한 뼈아픈 폄하 속에서도 나름의 지지적 지역연구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 온 상황에서 바로 인접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등지에서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이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역사발전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독일어권 지리학은 최근의 신지역지리학을 둘러싼 백화쟁명인 이론논의와 달리 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지적 서술을 몸소 실천해 왔다.

이 글은 독일어권 지리학계의 지역지리학 연구동향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독일의 지리학 동향은 논의하면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독일어권 지역지리학의 발달과 그 방법론적 쟁점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어권의 지역지리학의 추이를 개관하는 동시에 지역지리학의 쇠퇴와 재흥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논리와 최근 라이프치히 지지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 등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전통 지역지리학의 발달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지리학은 지리학의 패러다임에 있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19세기 말 지리학은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요청되는 이른바 적절한 학리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오랜 고심 끝에 지역지리학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적 연구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어권 지리학계의 노력은 두드러졌고, 지역지리학이 지리학의 중심이라는 독일어권의 논리체계는 이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 헤트너(A. Hettner)는 자연지리학 중심의 일반지리학에서 탈피하여 지지를 지리학의 왕좌(王座)에 올려놓았다. 특히 그의 지지도식(地誌圖式 laenderkundliches Schema)은 많은 지지서의 기본 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지지도식은 자연결정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역지리학적 사실의 서술에 있어 확고한 순서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즉, 위치, 형상, 크기(규모)에서 시작하여 지질, 지형, 기후, (육)수, 식물, 동물, 인구, 취락, 경제, 교통, 언어, 종교, 국가관계에 이르기까지 지지기술의 순서는 인과적 연쇄에 통합된다고 고찰하였다. 이러한 지지도식은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서로 다른 지역간 비교가 용이하며, 비교적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지리학적 서술을 간단하고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지도식은 이론적 논의와 달리 완고한 백과사전적 도식주의에 얽매어 지역지리학적 논제들을 과학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또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헤트너류의 지지가 지닌 (비)과학적 경직성과 도식주의적 방법을 정태적이라고 혹평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학자는 슈페트만(H. Spethmann)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지 방법론을 동태적 지지(dynamische Laenderkunde)로 일컬었

다. 이는 곧 한 지역 또는 경관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지리 요인(Dominante)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해석학적 논리에 따른 인식의 확장 속에서 항상 새로운 요인들을 이에 연결시켜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순환적으로 심화시키면서 한 지역을 서술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슈페트만의 반론은 독일 지리학계에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한 반면, 헤트너의 지지도식은 당시 지리학계를 주도하던 그라트만(R. Gradmann), 크렘스(N. Krebs), 슈레퍼(H. Schrepfer), 라운텐자흐(H. Lautensach), 크라우스(쑤. Kraus) 등에 의해 지지를 받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지리학의 중심적 방법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정 지표공간, 즉 공간개체(Raumindividuen)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성기술적(idiographisch/idiographic)으로 서술해 나가는 지리학은 나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유형적인 것(das Typische)을 지향하며 일반지리학과 마찬가지로 법칙추구적(nomothetisch/nomothetic) 또는 규범적(normativ)으로 연구되는 경관학(Landschaftskunde)을 통해 새로운 방법론<sup>1)</sup>을 받아들이면서 1960년대 말까지 그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갔다.

하지만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지리학은 전 산업사회와 전혀 다른 시대적 상황(즉 노동분업의 강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국제화를 수반한 지역간 수평적·수직적 연계관계의 강화, 지리적 현상의 자연적 소여조건과의 이완)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미 및 스칸디나비아권의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지리학의 새로운 사조가 수입되면서 그 사회적 적실성과 함께 방법론적 유용성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69년 킬(Kiel)에서 개최된 제37차 독일 지리학대회를 계기로 지역지리학에 대한 비판이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sup>2)</sup>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전통 지역지리학에 대한 비판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지만, 이를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Blotevogel, 1996). 첫째 지역지리학이 갖가지 사상을 단순히 수집, 기술하고, 다양한 단위공간, 즉 지역의 특성을 개성기술적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었다. 둘째, 지역지리학이 사회적 유용성 내지 적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곧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거의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를 교육하는 상아탑의 학문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지리학은 지리학 밖의 기준에 의해 명백한 또는 적어도 잠재적인 지리결정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넷째, 지역지리학이 묵시적으로 기독교의 교구적(즉 협소한) 세계관(parochiale Weltsicht)에 입각한 규범적 성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역지리학은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초반까지 깊은 정체를 겪었다. 특히 지리학을 공간과학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관철되면서, 지역지리학은 지리학의 중심적 위상을 급속히 상실하고, 주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 지역지리학은 기껏해야 사실을 기술하는 학문 연구의 전(前)단계 또는 실천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학의 응용분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969년이래 일련의 출판사에 의해 지지서가 기획되면서 독일어권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지지서가 출간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非)지리학자들에 의한 지지(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었다.

### 3. 현대 지역지리학의 재흥: 198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을 폄하하던 시대적 흐름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특히 대학의 일부 연구자들이 킬 지리학대회에서 받은 충격을 지리학을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 위에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고<sup>3)</sup> 그 정당성을 다시금 확립하

- 1) 대표적인 것이 경관학적 전통에 유래하는 파사르게(Passarge)와 크렘스 등의 비교지지(vergleichende Laenderkunde), 라운텐자흐의 지리학적 형태변이론(Formenwandellehre), 보베크와 슈미튀젠(Bobek & Schmithuesen)의 통합론(Integrationslehre) 등이다.
- 2) 특히 독일어권에서 영미의 논리실증주의 지리학과 비판합리론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 인문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바텔스(D. Bartels)의 교수자격논문(*Zur Wissenschaftstheoretischen Grundlegung einer Geographie des Menschen*, 1968)을 근거로 당시 학생 세대 및 소장학자들은 전통 지역지리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 3) 대표적인 것이 동태적 지지를 더욱 발전시켜 문제지향적 지지(problemorientierte Laenderkunde)를 구상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성공적인 예가 1973년에 발표된 잔트너(G. Sandner)와 슈테거(H.-A. Steger)의 라틴 아메리카의 지지이다. 여기서는 개별 문제 또는 문제영역이 지지 서술의 중심에 자리잡으며, 헤트너도식에

는데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지리학의 과학이론적 정당성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향의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현대 지리의 성격을 전통 지리와 달리 규정하는 노력도 대두하였다. 예컨대 일반지리학의 응용으로서 지리, 법칙정립적 영역과 특수한 주변조건의 통합으로서 지리, 그리고 개인의 생활세계적 행동상황의 분석으로서 지리 등을 둘러싼 이론적 검토도 전개되었다. 당연히 1980년대 이후 독일어권에서 지역지리학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에서 시작된 이른바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을 둘러싼 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독일어권 지역지리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라이프치히(Leipzig) 소재 지리연구소(Institut fuer Laenderkunde)<sup>4)</sup>의 설립을 둘러싼 이론 논의였다. 당시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 논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립관계로 파악되는 혼란스러움과 모순 속에 처해있었다. 첫째, 동서독간에 지역지리학에 대한 평가에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동서독간의 의사소통의 제한과 서로 다른 국제적 연관으로 말미암아 이론 논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온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둘째, 과학적 학문모델을 지향하는 과학적 지리학에 의한 지역지리학에 대한 낮은 평가와 현실적으로 수없이 출간된 (그리고 시장이 요구하는) 지역지리학적 설명 간에 분명한 모순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한편으로 영미,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지역지리학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이론 논쟁과 다른 한편으로 독일어권의 묵묵부답 사이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 나라는 여러 모로 지역지리학적 전통의 후진지역으로 여겨졌지만, 그 상황은 반전되고 있었다. 또한 독일어권에서는 많은 지지서가 쓰여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개념적 성찰이 부족하였다. 끝으로 사회과학 지향적 지리학자와 자연과학 지향적 지리학자들간의 교류가 적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독일어권에 있어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결여는 아마도 심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960년대 '진정한 과학이론적 입장'이 무엇이며, 지역지리학의 논리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둘러싼 '신념상의 전쟁'(Glaubenskriege)을 치른 후 이론적 문제에 누구나 탈진하였다는 것이다. 본질적 내용은 이미 모두 언급하였고 교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지리학적 전통을 의식적으로 지키겠다는 부류와 내용적으로 특화된 연구에 중점을 두고서 지역지리학과 단호한 결별을 시도한 부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감추어진 지역지리학적 패러다임이 그 유효성을 상실한 뒤, 지역지리학은 단순히 지역적 지식을 수집, 가공, 서술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뿐, 하나의 연구과제(Forschungsaufgabe)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은 많은 경우 타학문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을 막연히 원용하여 다양한 수신자들에게 위해 가공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지역지리학이 단순히 서술이 아닌, 연구과제로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폭넓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연히 1990년대 이후 독일어권 지역지리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연구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과 함께 관점의 차가 크게 하였다. 첫 번째 부류는 '확신에 찬 지지론자'(ueberzeugte Laenderkundler)로서 60년대 말, 70년대 초 지지에 대한 공격에 깊은 충격을 받고 그 후 이론논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 기간을 오로지 지지서를 집필하는데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지지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지지학적 반개혁'을 기대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이른바 '과학적 근대화론자'(szientifische Modernisierer)로서 70년대 지리학의 방법론적 논쟁을 통해 법칙추구적, 엄정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지리학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지지연구소의 설립은 홀려간 지리학을 다시 새우려는 시대착오적인 일이었을 뿐이었다. 세 번째 부류는 '비판적 이론가'(kritische Theoretiker)로서 사회정책적으로 참여지향적이며, 지리학은 비판적 사회과학 또는 환경과학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지연구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쩔든 사회비판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부류는 이른바 '성찰적 회의론자'(reflexive Skeptiker)로 불리어지는데, 수년간에 걸친 이론논쟁을 뒤로한 사람들이었다. 지지연구소의 활동도 적어도 책

항상 맨 먼저 다루어진 자연환경이 부분적으로 문제와의 낮은 연관성 때문에 텍스트의 후반부에 서술되기도 한다. 문제지향적 지지는 어떤 지표공간의 지역지리학적 상호 관련성과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는 지닌다.

4) www.ifl-leipzig.com 참조할 것.

임 있는, 창조적이며, 이론에 입각한,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리연구소(즉, 지역지리학)를 둘러싼 논의는 회의론과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그 어떤 경우든 전통적인 지리학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 기술적이고, 방법론적 성찰이 없는, 지리결정론적 지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지는 결코 사소한, 지적으로 성가신 작업이 아닌, 긴장되는 새로운 연구관점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 4. 결론 : 독일어권 지역지리학의 과제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지리학을 도대체 어떻게 구상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지리연구소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오늘날 독일어권 지역지리학은 다음과 같은 테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지리학은 과학적 과제로서, 결코 진부한 것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지리학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사회적 요구 상황에 조용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지리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지역지리학은 더 이상 헤트너, 라우텐자흐, 보백 등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옛 거장과의 단절 없는 순진한 연계라는 의미에서 지지적 반개혁(Gegenreformation)은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지리학에 하나의 재난에 다름 아니라는 것으로,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지 서술방식과 체제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넷째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성격의 지역지리학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념 및 용어(예컨대 공간, 토지, 지역, 경관, 자연환경)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지리학적 연구를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Forschungsprogramm)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적 주제분야, 이론적 지평, 그리고 문제설정 등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기보다 포괄적인 상위의 시각(즉, 하나의 큰 맥락,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지향의 실용적 관점에서)에서 자리 매김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지역지리학은 이론과 경험(실증)의 구조적인 비대칭 문제가 유효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안영진, 2002, “우리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84-198.  
 안영진 (역), 2003, 사회공간론 -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서울, 도서출판 한울 (= 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 eine Einfuehrung, Bern, Haupt).  
 유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森川 洋, 1997, “ドイツにおける地誌學の研究動向”, 廣島大學 地誌研年報, 6, 15-50.  
 Blotevogel, H. H., 1997, “Aufgaben und Probleme der Regional Geographie Heute: Ueberlegungen zur Theorie der Landes- und Laenderkunde anlaesslich des Gruendungskonzepts des Instituts fuer Laenderkunde Leipzi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11-40.  
 Borsdorf, A., 1999, Geographisch denken und wissenschaftlich arbeiten, Gotha, Klett-perthes.  
 Stewig, R., 1979, Probleme der Laender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Werlen, B., 1997, Sozialgeographie alltaeglicher Regionalisierungen Band 2 - Globalisierung, Region und Regionalisierung,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Wolf, K., 1994,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der geographische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2), 361-367.  
 Wirth, E., 1979, Theoretische Geographie, Stuttgart, Teubner.